

1

재해와 일본의 사상

스에키 후미히코



- (위) 메기가 난동을 부려 지진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표현한 우키요에, 메기를 퇴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가모노 조메이, 니치렌의 입정안국론, 우치무라 간조



머리말

일본에서의 재해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다른 시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최근에 두 개의 커다란 지진재해를 겪었다. 1995년의 한신(阪神)·아와지(淡路)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다. 이 두 개의 재해가 일본의 사상·정신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재해 다발국가인 일본에서 과거의 사상은 어떻게 재해를 받아들이 왔는지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1. ‘1·17’에서 ‘3·11’로 : 지진재해와 현대의 정신상황

1) 1995년에 이르는 일본의 정신상황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아와지 섬 북부의 해저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magnitude) 7.2의 거대지진이 효고(兵庫)현을 중심으로 한 간사이(關西) 지방을 휩쓸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이다. 사망자는 6,434명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에서 최악의 재해였다. 거대한 재해는 일본의 사상 및 정신상황

* 지은이 |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 1949년생. 도쿄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문학). 현재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도쿄대학 명예교수, 비교사상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일본사상사이며, 지은 책으로는 『日本仏教史』(新潮社, 1992), 『平安初期仏教思想の研究』(春秋社, 1995), 『鎌倉仏教形成論』(法蔵館, 1998), 『日本宗教史』(岩波文庫, 2006), 『鎌倉仏教展開論』(トランスビュー, 2008), 『近代日本の思想・再考』(全3巻, トランスビュー, 2004~2010), 『近世の仏教』(吉川弘文館, 2010) 등이 있다.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 약 2개월 후 일본을 뒤흔든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함께 되새겨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3월 20일 도쿄의 지하철에서 발생한 옴진리교 신자에 의한 맹독성 가스 사린 살포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건 후 3월 22일에 아마나시현 가미구이시키촌의 교단본부에 대한 경찰의 수색 및 조사가 진행되어 교조 및 교단 간부가 체포되었고 그와 함께 상식을 뛰어넘는 교단의 실태가 밝혀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시 말하면 대지진이 간사이, 옴진리교 사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단지 큰 사건이 한 시기에 겹쳐졌을 뿐인 우연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자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정신상황을 일변시킬 정도의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양자를 연관시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신상황의 변천을 간단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일본의 근대는 구미(歐美)의 압력에 저항하면서도 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국내의 근대화를 꾀하면서 구미 제국과 나란히 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좌절하여 재차 근대화로 향하게 되었다. 전전에 대한 반성에서 미국 점령하에 민주주의와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그 기치 아래 전후의 부흥을 달성하였다. 1950~60년대에는 고도성장이 달성되었지만, 70년대 무렵부터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었다. 80년대에는 거품 경기에 들끓기도 했지만, 90년대 중반에는 거품 붕괴와 더불어 만성적인 불경기에 빠져들었다.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의 국가주의·군국주의가 몰락하여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 적극적으로 발언대에 나서게 되었고, 동시에 학생운동·노동운동이 활발해져 종종 국가와 충돌하였다. 국제사회의 냉전체제를 반영하여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이 제1당, 제2당으로서 국정을 양분한 이른바 '55년 체제'가 고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지식인 및 학생운동은 1960년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반대

운동으로 하나의 정점을 찍었지만, 패배로 마감되었다. 그후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신좌익 운동이 생겨나 1969, 1970년 무렵의 전공투운동으로 발전했지만, 그 운동도 광범한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붕괴되었고, 그 일부는 적군(赤軍)으로서 과격한 테러 행위에 매달려 자멸의 길을 걸었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기존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결정타는 1990년에 일어난 동서 독일의 통일, 1991년에 발생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에서 비롯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내의 정치정세도 크게 동요하게 되었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내각에 의해 55년 체제는 종언을 고했다. 이러한 동향은 진보주의의 환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 정치에 의거한 이상적 사회건설운동의 무력함을 노정하게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신종교(新新宗教)라 불리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인 교단의 하나가 움진리교였다. 교조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 본명 松本智津夫)는 카리스마적 성격과 티베트 밀교 등을 섞은 교의 및 수행법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신자에게 절대자로 군림했는데, 무대 뒤에서는 일찍부터 살인을 포함한 범죄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1995년 무렵에는 기존 질서 및 사상이 그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채 불안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움진리교 및 통일교와 같은 종교교단이 뭔지 모를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정신상황이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지하철 사린 살포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기존의 질서 및 사상의 종언을 결정지었다.

2) 1995년 :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움진리교 사건

한신·아와지대지진이 일본사회에 제기한 새로운 개념으로 볼런티어(volunteer)와 트라우마(trauma)가 있다고 한다.¹⁾ 볼런티어는 기존의 조직에 의존하지 않

1) 北原糸子 編,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 2006, 388쪽.

고 아무런 보상에 대한 기대도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절정이었을 때는 하루에 2만 명, 연인원 백만 명에 달하는 사회인 및 학생 등의 볼런티어가 커다란 힘을 발휘하였다. 종래 일본사회는 혈연 및 지연에 기반을 둔 공동체 속에서 상호부조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종래의 혈연 및 지연이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은 그 최대의 피해지역이 고베(神戸)에 집중된 도시형 재해였기 때문에 혈연 및 지연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볼런티어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이러한 볼런티어 활동은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성립하게 되면서 NPO(특정비영리활동법인)로서 종래의 고정적인 조직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볼런티어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동향이었던 데에 비해, 트라우마는 부정적 측면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충격적인 사건에 조우함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킨다. 그 장애가 특히 심각하여 정신병리적 질환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가리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 한다. PTSD는 전쟁·재해·가정 내 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불안 및 불면, 감정의 마비, 기억 장애, 플래시백(flashback) 등의 정신적 증상을 가리킨다.

한신·아와지대지진에서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역사상 선례가 없었을 정도로 대지진 후 정신과 의사의 활동이 잦아지게 되었다.²⁾ 또한 노인이 임시주택에서 고립된 채 고독사를 맞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마음’의 문제는 재해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것은 물론 한신·아와지대지진에 의해 비로소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재해 및 전쟁 등의 경우에도 종종 보이는 것이었지만, 이제까지는 본격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았다. 정신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2) 中井久夫 編, 『1995年1月・神戸: 「阪神大震災」下の精神科医たち』, みすず書房, 1995.

관련되지만, 당시는 물질적 손해를 회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제일차적 과제였던 만큼 ‘마음’의 문제는 무시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신·아와지대지진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부흥이 추진되었고, 또한 수도권은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일본 전체의 정신상황을 크게 일변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후의 옴진리교 사건이 이어짐으로써 수도권을 포함하여 일본의 정신상황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안전하고 치안상태가 좋다는 점이 자랑거리였는데, 수도권도 간사이권도 모두 피해를 당하여 극히 위험한 나라로 바뀌고 말았다.

지하철 사린 살포사건은 한신·아와지대지진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 사린 살포는 그 이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하르마게돈(세계최종전쟁)의 접근을 자작극으로 연출할 목적이었는데, 한신·아와지대지진은 그것을 극히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 사린 살포사건 직전에 간행된 아사하라의 저서 『해 뜨는 나라, 재해가 가깝다』에서 그는 “1995년 말 무렵부터 한순간에 일본은 커다란 변화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이 커다란 변화는 바로 하르마게돈,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라고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³⁾ 옴진리교가 해체된 이후에도 1999년에 세계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 유행할 정도로 종말론적인 상황은 지속되었다.

대지진과 옴진리교 사건 이후, “끝없는 일상(日常)”⁴⁾이라 불리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운동의 정열은 잦아들었고 정치변혁으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꿈은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신신종교 붐이 일어났는데, 옴진리교의 기만이 드러남으로써 종교 역시 신용할 수 없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갈 데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 가운데 뭔가 불길한 사건은 점점 더 늘어만 갔다. 1997년에는 한신·아와지대지진의 피해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3) 麻原彰晃, 『日出づる国, 災い近し』, オウム, 1995.

4) 宮台眞司, 『終わりなき日常を生きる』, ちくま文庫, 1998.

적었던 고베 스마(須磨) 뉴타운에서 연쇄아동살해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살해한 소년의 머리 부분을 학교 앞에 전시하는 잔인함과 사카키바라 세이토(酒鬼薔薇聖斗)라는 이름을 내건 게임 감각의 도전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살인범으로서 14세의 중학생이 체포되어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정신병리학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마음속의 깊은 어둠”이 크게 클로즈업되었으며, ‘꼭 막힌 느낌’(閉塞感)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타쿠 문화’라고 불리는 폐쇄적인 서브컬처가 점점 더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⁵⁾

3) 2011년 : 동일본대지진과 망자의 문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은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쪽 연안부터 간토(關東) 동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거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사망자는 1만 5천 명을 넘었으며, 대지진 후 1년이 지난 현재에도 3천 명 이상의 행방불명자가 남아 있어 이를 위한 수색활동이 진행 중이다. 2012년 2월 부흥청(復興廳)이 설치되었지만, 그 후에도 부흥의 전망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그 이유는 첫째, 지진·쓰나미·원전사고라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띤 재해인 만큼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발전장치 그 자체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광범위한 지역에 퍼진 방사능 오염에 따른 인체에의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극히 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둘째,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각각의 지역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 센다이(仙台)와 같은 도시지역은 비교적 빨리 부흥의 전망이 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쓰나미의 피해는 해안선을 따라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데다가 원래 그 지역은 열악한 교통편,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다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마을이 많은 지역이어서 부흥의 로드맵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후쿠시마현의 농업·축산업은 방사능오염에 따라 대단히

5) 末木文美士, 『他者／死者／私: 哲学と宗教のレッスン』, 岩波書店, 2007.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쓰레기 철거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그 영향은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파급되고 있다. 종전에는 피해 뒤에는 부흥 버블이라고도 부를 만한 호경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사고에 따라 국내의 거의 모든 원전이 정지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력공급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 수도권을 대지진이 직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조차 제기되고 있다. 만일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까에 대한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동일본대지진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동일본대지진의 사회적 측면을 생각할 때, 일본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70년대 전반을 정점으로 하여 출생률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1940년대 후반의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이른바 ‘단카이(團塊)세대’가 60세를 넘겨 저출산 및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상황 또한 국가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연금세대가 증가하면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경제 하강기의 대지진은 경제 상승기에 비해 훨씬 더 타격이 크다. 또한 피해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부흥의 곤란함이라는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대지진 이전부터 인구과소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그 고령화가 한층 더 인구과소를 가속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 지방 도시는 피폐해지고 있었다. 대지진은 이들 지역을 직격하여 재건을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이 거론되던 “끝없는 일상”은 종언을 고하고, “끝없는 비일상(非日常)”으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문제로서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하여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정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지진 후 종종 연호되고 있는 “도호쿠 힘내라!”, “일본 힘내라!”라는 구호는 정신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대책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대감’의 강조는 그만큼 인간관계의 해체가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즈마 히로키(東浩紀)는 이것을 “대지진으로 우리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⁶⁾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적으로도 기존의 개념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예를 들면, 대지진 후 가모노 조메이(鴨長明)의 『방장기』(方丈記)에 주목하여 ‘무상’(無常)이라는 개념이 종종 인용되고 있다. 실로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많은 가옥이 파괴되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현실을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방사능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데에만도 수십 년, 완전히 무해한 상태에 이르는 데에는 십만 년이 걸린다고 한다. 피해지역의 부흥도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것을 무상이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다면 무상론을 대신하여 어떠한 사상이 가능할까. 재해에 관한 과거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검토하는 것은 제2장의 과제인데, 여기서는 21세기에 들어서 망자(亡者)의 문제가 크게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⁷⁾ 원래 근대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생(生)의 사상이며, 현세에서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을 목표로 해왔다. 사후의 문제는 과학적 해명의 불가능성에 따라 배제되었으며, 유물론과 같이 사후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상이 유력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원폭피해지 히로시마(廣島)의 원폭희생자 위령비 정식명칭은 히로시마 평화도시기념비이다. 공적으로는 위령을 의도하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⁸⁾

그러나 실제로는 전쟁 망자의 문제는 전후 60년 이상이 지나도 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야스쿠니(靖国)신사 및 난징대학살 문제 등 전쟁 망자의 문제는 결코 사라져 잊혀진 문제가 아니다. 대지진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는 대도시에서의 대규모 희생이라

6) 東浩紀, 「震災でぼくたちはばらばらになってしまった」, 『思想地図』2巻, 2011.

7) 末木文美士, 『他者・死者たちの近代』, トランスビュー, 2010.

8) 末木文美士, 『他者・死者たちの近代』, 168쪽.

는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망자의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것은 자각적인 사상 레벨에서보다도 먼저 대중적인 사회현상으로서 나타났다. 2006~2007년경 「천 갈래의 바람이 되어」(千の風になって)라는 가요가 대히트했는데,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에 작사된 것이 9·11 위령집회에서 낭독되면서 화제가 된 것이라 한다. 이 노래는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세요”(아라이 만新井満 읊김)로 시작하여 망자가 무덤 속에서 잠들지 않고 천 갈래의 바람이 되어 허공에서 산 자를 지켜본다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이 노래가 유행하게 된 무렵에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장례식 및 묘지의 문제가 커다란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영화 「오쿠리비토」(おくりびと, 다키타 요지로 감독, 한국어판 「굿바이」)가 공개되어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장례식에서 시신을 깨끗이 씻고 납관하는 장의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삶과 죽음, 가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를 통해 이제까지 그들에 가려져 있던 망자에 관계되는 직업이 일약 클로즈업되었다. 2009년 나오키상(直木賞)은 덴도 아라타(天童荒太)의 「애도하는 사람」(悼む人)이 수상했는데, 주인공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숙하면서 각지를 순회하여 비명횡사한 망자를 애도한다는 내용이다.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이와 같은 망자를 테마로 한 작품이 연속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기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신·아와지대지진, 그리고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규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전과 같이 그것을 극복하여 활기가 넘치는 사회를 재건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에서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예견한 죽음 및 망자의 문제가 이제는 불가피한 문제로서 전면에 등장한 것 같다. 실제로 지진과 관련하여 죽음과 망자를 주제로 한 사상서의 출판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⁹⁾

9) 若松英輔, 『魂にふれる: 大震災と, 生きている死者』, トランスビュー, 2012; 森岡正博, 『生者と死者をつなぐ: 鎮魂と再生のための哲学』, 春秋社, 2012.

2. 재해의 사상사

1) 고대·중세의 재해관

① 재해관의 기본유형

일본은 고대부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해 왔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을 쌓고 한발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축조하는 등 과학기술에 의한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기서 자연의 심오한 의지를 묻는 종교적인 재해관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고대 일본인의 재해관, 특히 지진에 관한 사상으로서는 니시오카 도라노스케(西岡虎之助)는 천견(天譴)¹⁰⁾, 음양도(陰陽道), 재양신 사상, 이렇게 세 종류를 들고 있다.¹¹⁾ 니시오카의 설명에 따라 간단히 개괄해 보면, 우선 천견의 사상은 나라(奈良)시대부터 헤이안(平安)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보이는 것이며, “주로 천황의 조서에 나타나는 유교주의에 의거한 것”이다. 천견은 “계급 전반에 내려진 하늘의 경고표시가 아니라, 단지 정치에 관여하는 특수한 계급에만 한정되어 내려진 것”이다.

다음으로 음양도의 사상은 헤이안 중기 이후의 사상이다. 음양도에서는 네 가지 지진이 있다고 한다. 그 네 가지는 화신동(火神動), 용신동(龍神動), 금시조동(金翅鳥動), 제석천동(帝釋天動)이다. “이러한 네 종류의 지진은 각각 일정한 숙요(宿曜, 달의 상태에 따라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성술의 일종)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역으로 말하면 숙요가 어떠한가에 따라 지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그것이 여러 가지 길흉화복의 전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때 주의할 것은 “음양도에서는 지진을 괴이(怪異)한 것으로는 인정하지만, 재액(災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지진 자체는 재액이 아니라 재액의

10) 하늘의 꾸짖음. 고대 중국의 한(漢) 무제(武帝) 재위기에 활약한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음양오행, 천인감응론 등에 의거하여 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천재지변을 내려 견책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 옮긴이

11) 西岡虎之助, 「王朝時代の地震とそれに対する思想」, 『社會史研究: 日本震災史』 49~55, 1923.

전조가 되는 이번으로 간주되어 그 때문에 위정자는 근신하여 재액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번재가 재앙신 사상이다. 재앙은 천견설에 의거한 하늘의 질책과 유사하다. 그러나 “별을 내리는 주체가 천견설은 하늘이고, 재앙신설은 가미(神)라는 점에서 서로 미묘하게 다른 것이다”. 가미에 의한 재앙이라는 시각이 명백히 문헌에 보이는 것은 다카쿠라(高倉) 천황이 인안(仁安) 4년(1169) 정월 26일에 이세신궁(伊勢神宮)에 바친 칙명의 해석에서 보인다고 한다.

② 재앙설의 전개

이상과 같이 니시오카 도라노스케의 정리에 의거하여 고대·중세의 재해관을 개관하였다. 이 세 가지의 재해관은 고대·중세 재해관의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에 대해 다소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천견설과 재앙신설에는 니시오카가 거론한 하늘과 가미의 차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천견설은 지배자가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하늘이 징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와 다르게 재앙신의 경우는 도덕적인 선악보다도 가미에 대해 바르게 제사 지냈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 음양도 사상은 선악이 아니라 이번에 대해 근신할 것을 요구하는 점, 또한 용신 등의 가미가 일으킨다는 점에서 재앙신설에 가깝다. 단지 이번의 출현을 숙요의 이론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바는 재해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네 종류의 지진의 원인과 숙요와의 관계는 원래 불경의 『대지도론』(大智度論) 8권(大正藏25, 117上)에 의거한 것으로 음양도설은 실제로는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세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이 네 종류에 수신동(水神動)을 더한 다섯 종류 중의 하나로 지진을 분류하였다.¹²⁾

재앙신설은 이미 정관(貞觀) 8년(866) 1월 20일에 “여러 가미가 재앙신이 되었다”(『類聚三代格』)라는 구절에 보이며, 그 사례들은 헤이안 초기부터 보인

12) 黒田日出男, 『龍の棲む日本』, 岩波書店, 2003.

다. 그 외에도 유사한 용례는 많다. 호조 가쓰타카(北條勝貴)에 따르면,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고사기』(古事記) 스진(崇神) 천황조에 “가미가 분노하여 인간에 재앙을 초래하는 ‘재앙’의 양상”이 보인다고 한다.¹³⁾ 즉, 역병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갈 때, 삼륜산(三輪山)의 오모노누시 신(大物主神)이 신탁으로 그 재앙은 가미의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미가 요구하는 바대로 제사 지낸 결과 역병이 멈췄다고 한다.

헤이안기에 발달한 재앙신설의 전형으로서는 원령설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음모에 의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영혼이 재액을 초래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음모 및 책략이 횡행했던 헤이안 초기에 특히 유행했다. 정관 5년(863)에 사와라 친왕(早良親王)을 비롯한 6인의 영혼을 교토의 신센원(神泉苑)에서 제사지낸 것이 최초라고 한다. 신불습합(神佛習合)의 분위기 속에 원령신에게 밀교의 명왕(明王)의 성격이 부여되었으며, 밀교적 의례에 의거하여 진정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원령신의 전형으로서는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 845~903)의 영혼을 제사 지내는 덴만 천신(天滿天神)이다. 미치자네는 뛰어난 문인 정치가였는데, 후지와라(藤原) 씨의 음모에 의해 다자이부(大宰府)로 좌천되어 거기서 원한을 품고 죽었다. 그의 사후, 역병 및 낙뢰 등의 재해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불안이 커졌는데, 그것이 미치자네 영혼의 소행으로 간주되어 가미로 모셔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앙신설은 정치와 관련된 국가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발병 및 돌연사도 종종 악령에 의해 일어났다고 생각되었다. 악령에는 망자의 영혼 및 적대적 존재에 대한 저주, 생명(生靈), 갖가지 악마적 존재가 포함되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밀교적인 주술로 대항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마쓰리는 이러한 재액신을 위무(慰撫)하여 재액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졌다. 그 전형은 교토의 기온마쓰리(祇園祭)인데, 중세에는 재액신인 우두천왕(牛頭天王)이 그 제신으로 간주되었다. 우두천왕을 잘 모시지 않은 고탄 쇼라이

13) 北條勝貴, 『災害と環境』, 北原糸子 編,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 2006, 19쪽.

(巨攄將來)는 우두천왕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정중하게 환대한 소민 쇼라이(蘇民將來) 일족은 재액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재액신은 재액을 초래하는 공포스러운 가미이지만, 동시에 정중하게 제사 지내면 그 강력한 힘에 의해 재액을 피하게 해주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선신(善神)으로서도 작용한다는 양가성을 띠고 있다. 우두천왕은 조선으로부터 유래된 가미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신불습합적이면서 동시에 음양도의 요소도 섞여 있다.

헤이안기부터 중세에 걸쳐 원령설을 포함한 재앙설은 널리 수용되어 일본에서는 천견설보다도 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도덕적인 선악보다도 현세를 넘어 그 배후에 있는 영혼 및 신불(神佛)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천견설이 유교적인 정치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재앙설은 종전의 가미 신앙에 유래하는 요소를 가지면서도 불교, 특히 밀교에 의해 크게 전개되었으며 게다가 음양도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③ 재해의 주체적 수용

그런데 중세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재해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종 재해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보인다. 그 사례로서 가모노 조메이의 『방장기』 및 니치렌(日蓮)의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들 수 있다.

가모노 조메이(1155?~1216)는 가모 미오야 신사(賀茂御祖神社, 시모가모 신사[下鴨神社]) 신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관으로서의 길이 막혀 출가하여 교토 남부의 히노(日野)에서 은거하였다. 『방장기』는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짧은 에세이인데, 전반부에서는 당시의 화재, 회오리바람, 천도(遷都), 역병, 지진 등 각종 재해가 빈발했던 양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는 겐페이(源平) 전란¹⁴⁾이 휩쓸고 있던 와중이어서 『방장기』에는 자연재해와 함께 다이랴 가문(平

14) 1180년부터 1185년까지 중세 헤이안시대 일본에서 벌어졌던 내전이다. 이 전쟁에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다이랴 씨(平氏)와 지방세력인 미나모토 씨(源氏)는 일본의 각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결국 다이랴 씨는 패배하고 미나모토 씨가 전국을 장악하여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는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되었

家)에 의한 후쿠하라(福原)로의 천도와 같은 정치적인 혼란도 역시 재해로서 동열에서 취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로 순식간에 사망하고, 그 자리에 역시 새로운 집들이 건축되는 모습에 무상(無常)을 통감한다. 그것이 권두의 유명한 문구, 즉 “흘러가는 강물은 끝없이 흐르지만 똑같은 물이 아니다. 물웅덩이에 떠 있는 물거품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것처럼 멈춤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거처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¹⁵⁾로 결실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히노에 은거하면서부터의 한적한 삶의 평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암자의 생활을 즐기는 것도 집착이 된다고 하여, “너는 모습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탁한 세상에 물들어 있구나”¹⁶⁾라고 하면서 그 평안에 대해서도 자성(自省)한다.

이와 같이 무상을 이론으로서보다도 감상적인 ‘무상감’으로 파악하고 수행에 정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자로서 한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은 은자문학이라 불리는 중세문학의 큰 장르를 형성하게 되었다.

『방장기』가 재해가 지속되는 세상을 벗어나 한적한 삶의 평안을 추구한 데에 비해서, 천견설 및 재앙설을 받아들여 스스로의 종교적 실천의 근거로서 삼았던 사람이 니치렌(1222~1282)이었다. 니치렌이 살았던 시대는 가마쿠라시대 후반이었는데, 각종 재해가 끝없이 이어져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높았던 시대였다. 『입정안국론』에서는 “나그네가 와서 한탄하여 말하기를, 근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지상에 천변(天變), 지요(地夭), 기근, 역병 등이 널리 하늘에 퍼지고 땅을 휩쓸고 있다. 마을 여기저기에는 소와 말들이 쓰러져 그 해골이 거리에 넘치고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이미 태반을 넘었고 이를 슬퍼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¹⁷⁾고 운을 떼고 있는데, 이런 서술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다. ‘겐페이’는 ‘源平’이라는 한자에 대한 음독 표기이다. — 옮긴이

15) 鴨長明, 築瀬一雄 譯注, 『方丈記』, 角川書店, 1967, 15쪽.

16) 鴨長明, 築瀬一雄 譯注, 『方丈記』, 49쪽.

17) 佐藤弘夫, 『日蓮‘立正安國論’全訳注』, 講談社, 2008, 59쪽.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라는 나그네의 질문에 대해 주인이 대답한다. 그 기본은 “세상 모든 일이 바른 자리(正)를 잃어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졌다. 이에 따라 선신(善神)은 이 나라를 떠나 버렸고 성인은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 이리하여 악마와 귀신이 휩쓸고 다니면서 재해가 일어났다”¹⁸⁾는 점에 있다. 사람들이 올바른 것에 등을 돌리고 악에 빠지게 되면, 선신은 나라를 버리기 때문에 남겨진 악마와 귀신이 난무하여 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선신사국설(善神捨國說)이라 부른다. 재해가 도덕적인 선악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천견설에 가깝지만, 천견설의 하늘이 유일자적인 것에 비해, 선신사국설은 선신과 악귀의 관계를 문제로 삼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지배자만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모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사람들 전체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것을 니치렌은 『금광명경』(金光明經) 등의 경전을 이용하여 논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올바른 것에 등을 돌렸다’거나 ‘악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가. 그는 사람들이 『법화경』(法華經)을 버리고 염불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호넨류(法然流)의 염불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니치렌은 『입정안국론』을 정부에 헌상하여 염불의 금지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이 사도(佐渡)에 유배당한다. 그런 상황에서 니치렌은 스스로를 응시하는 방법으로 『법화경』의 주체적인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것은 과거세에서 자기 자신이 『법화경』을 비방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현세에 수난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자성이었다. 그 자성이 『법화경』의 수행자로서의 자각을 더욱 심화시켜 갔다.

이와 같이 니치렌의 사상에는 염불 배격 등의 극단적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재해를 사상적인 문제로 파악하여 주체적인 문제로서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에 그 독자적 전개の特徴이 보인다.

18) 佐藤弘夫, 『日蓮‘立正安國論’全訳注』, 60쪽.

2) 근세의 재해관

① 지식인의 자연관과 재해관

근세가 되면 무사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의 세계에서는 유교가 주류를 점하게 된다. 유교에서는 천전설과 같이 하늘을 초월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근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하다. 특히 그 사고방식은 다이묘(大名) 등 지배자 자신의 자성에 종종 등장한다.¹⁹⁾ 그러나 근세에 널리 퍼진 주자학에서는 초월적인 하늘을 설정하지 않고 세계를 그 자체로서 내재적인 원리에 따라 발전하고 전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근세 초기의 『유불문답』(儒佛問答)은 유학자 하야시 라잔(林羅山)과 재가 불교신자 마쓰나가 데이토쿠(松永貞徳)와의 논쟁을 기록한 것인데, 불교 측이 전세, 현세, 내세의 인과의 논리를 펼치는 데에 비해, 유교 측은 이 세계가 '만물일체'(萬物一體)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차이가 커다란 대립점이 되었다.²⁰⁾

주자학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은 일반적으로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도 자연 속의 일부로 생각되었다. 이에 대해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근세 유교 속에 '자연'(自然)과 '작위'(作爲)를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발상이 생긴 점을 지적하고 거기서 근대의 출발점을 보았다. 특히 마루야마가 중시한 것이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였다.²¹⁾ 주자학이 사회 및 윤리를 자연과의 일관성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데 비해, 소라이는 양자를 떨어뜨려 사회의 질서는 성인이 인위적으로 성립시킨 것으로 사고하였다. 그에 따라 인간사회는 자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근세의 사상은 마루야마가 정리한 정도로 단순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근세에도 인간과 자연을 일관된 것으로 파악하는 사고가 일반적이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양자를 택일적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자

19) 若尾政希, 『安藤昌益からみえる日本近世』, 東京大学出版会, 2004.

20) 大桑斉・前田一郎 編, 『羅山・貞徳 "儒佛問答"』, ペリかん社, 2006.

21) 丸山眞男, 『日本政治思想史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2.

연'과 '작위'의 조화를 추구하는 길도 있었다. 즉, '자연'에 따르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작위'의 요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례는 예를 들면 니노미야 손토쿠(二宮尊徳, 1787~1856)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인다. 손토쿠는 오다와라(小田原, 가나가와현) 및 시모쓰케(下野, 도치기현)에서 냉해 등으로 황폐해진 농촌의 부흥에 성공했다. 그 근본사상은 '천리'(天理)와 '인도'(人道)를 대립시키면서도 상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세계는 순환하고 회전하면서 멈춤이 없다. 추운 겨울이 가면 더운 여름이 오고 또 더운 여름이 가면 추운 겨울이 온다. 날이 밝으면 낮이 되고 낮이 되면 밤이 온다. 또한 만물이 생기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다시 생겨난다.”²²⁾ 그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천리'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 “인도는 이와 다르다”²³⁾고 하여 '천리'와 '인도'를 확실히 구별한다. 사람은 깃털도 비늘도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차가운 비와 이슬을 피할 길이 없고 의복이 없으면 추위와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 이에 인도라는 원칙을 세워 벼를 선으로 잡초를 악으로 여기고, 집을 짓는 일을 선으로 그 파괴를 악으로 여긴다. 모두 사람을 위해 세운 도이기 때문이다”²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천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선악이란 없다”²⁵⁾는 것이 되지만, 인도를 세울 때에는 선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천리'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는 천리에 따른다고 해도, 그 틀 안에서 구별을 지어 잡초를 악으로 벼를 선으로 여기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이든 사람에게 편리한 것을 선, 불편한 것을 악으로 여긴다”²⁶⁾는 것이다. 이처럼 '인도'는 '천리'와 다르게 선악을 세우는 것이지만, '천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손토쿠는 수차(水車)에 비유하여 절묘하게 설명한다. “예를 들면 인도는 수차와 같다. 반은 물의 흐름에 따르고 반은 그 흐름을 거슬러 회전한

22)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岩波書店, 1973, 122쪽.

23)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3쪽.

24)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3쪽.

25)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3쪽.

26)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3쪽.

다. 전체가 물속에 잠기면 회전하지 않고 흘러가고 말 것이며, 또한 물을 떠나서는 회전하지 않을 것이다²⁷⁾라고 한다. 즉, 반은 ‘천리’에 따르면서 반은 ‘천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축도(畜道)는 천리자연의 도²⁸⁾인 데 비해, “존중해야 할 인도는 천리에 따르면서도, 역시 작위의 도로서 자연 그대로가 아니다²⁹⁾”라고 하는 것이다. 손토쿠는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황폐한 농촌의 재생을 꾀하여 성공한다. 재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길을 열어젖힌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손토쿠가 활동한 지역은 그렇게 자연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간토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적인 발상으로 부흥을 꾀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종종 기근에 시달린 도호쿠 지방에서는 그러한 자연관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다. 도호쿠의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인위를 부정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 한 사상가가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1762)였다. 쇼에키는 젊은 시절 재해에 대해 천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³⁰⁾ 역학(曆學)을 배우던 시절의 노트 『역(曆)의 대의(大意)』에서, “요괴(妖怪)는 국정(國政)을 사사롭게 전횡하는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늘이 그 잘못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民)은 천진(天真)이 머무는 곳(處)이다. 국정이 잘못될 때는 이로 인해 민이 괴로움을 당한다. 민이 괴로움을 당할 때는 그 근심에 천신(天神)과 지기(地祇)가 응답한다³¹⁾”고 주장한다. 국정이 잘못되어 민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근심에 감응하여 천신과 지기가 요괴(이변)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확립한 이후의 쇼에키는 천신 및 지기를 매개하지 않고 자연의 자기운동으로서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진영도』(自然眞營道, 3권)의 서문에서 “자연이라 함은 오행(五行)의 존칭이다³²⁾”라고

27)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3쪽.

28)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4쪽.

29) 奈良本辰也他校注, 『二宮翁夜話』 1, 124쪽.

30) 若尾政希, 『安藤昌益からみえる日本近世』, 2004.

31) 安藤昌益, 『安藤昌益全集』 16下, 農山漁村文化協会, 121~122쪽.

32) 尾藤正英他校注, 『安藤昌益・佐藤信淵』, 岩波書店, 1977, 13쪽.

한다. 그 ‘자연’은 ‘오행’이라는 것이다. “오행이 진퇴(進退)의 운동을 하는 곳에 저절로 질서가 생겨난다. 오로지 홀로 그렇게 진실되게 영위하는 곳이다. 천지, 인륜, 조수, 벌레, 물고기, 풀, 나무가 되는 이유이다”³³⁾라고 하는 것처럼, 질서는 우주적인 ‘천지’(轉定=쇼에키 독자적인 표기방법으로 천지를 가리킨다)에서 인간과 연관된 조수초목(鳥獸草木) 등의 환경, 그리고 인간세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쇼에키의 세계관은 세계와 인간의 일관성을 인정하는 주자학적 세계관에 가깝다. 그러나 거기서 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봉건적인 신분차별에 따른 것이 아니다. 쇼에키는 철저하게 농경의 현장에 입각하여 인간사회의 지배 관계를 부정하고 ‘직경’(直耕), 즉 직접적인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일을 이상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작하지 않는’(不耕) 자들이 근본적인 자연질서에 반해 신분질서를 만들어 지배하고 수탈하는 데에서 사람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본(稿本) 『자연진영도』 ‘사법신서권’ 하(私法神書券 下)에서는 “기괴, 천재지변을 두고 가미의 영험(靈驗)으로 여기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³⁴⁾라고 하여, 천재지변 및 이상 현상을 가미의 영험으로 여기는 사고를 부정한다. 또한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벼락신이 되어 사람을 죽인다는 설을 비판하면서 “천뢰신(天雷神)이 여기저기 떨어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 천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있는 곳, 가는 곳에 벼락이 우연히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다”³⁵⁾라고 하여, 낙뢰를 가미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현상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쇼에키는 재해를 완전히 자연현상으로서만 보고 있지도 않다. 인간의 선악이 천지의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한다. 『통도진전』(統道眞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3) 尾藤正英他校注, 『安藤昌益・佐藤信淵』, 20쪽.

34) 安藤昌益, 『安藤昌益全集』 16上, 64쪽.

35) 安藤昌益, 『安藤昌益全集』 16上, 67쪽.

사람이 내뿜는 공기가 천지가 마시는 공기가 되어 천지를 운동시키는 기운이 된다. 이 때문에 사람이 바른 기운이 될 때는 천지의 운기도 바르게 되며 대풍(大風), 폭우 등의 올바르지 않은 기행(氣行)은 발생하지 않고 만물의 삶도 좋아진다. 사람이 조화롭고 기뻐할 때는 천지의 운기도 조화롭고 순조로워 약으로 쓰일 생물을 낳고 희열과 행복이 사람에게 돌아온다. 사람이 항상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불행을 느끼고 탐욕적으로 되어 남을 위협하는 등의 악한 생각이 왕성해질 때에는 그 악한 마음과 사악한 기운이 언제나 호흡작용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 결국 천지의 운기를 더럽히게 된다. 그 사악한 기운이 쌓여 마침내 운기가 크게 격동하게 되는 것이다.³⁶⁾

마음의 옳고 그름에 따라 천지의 운기가 영향을 받아 온화하고 순조롭거나 격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행위의 선악이 최종적으로 자연의 순조로움 및 재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천견설에 가깝지만, 하늘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의지를 상징하지 않고, 직접 자연이 인간의 행위에 반응한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다.

이와 같이 쇼에키는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고 재해를 사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입장이 지식인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 쇼에키의 『역의 대의』는 니시카와 조켄(西川如見)의 천견설 비판을 반박하는 것이었다.³⁷⁾ 쇼에키 입장에서는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에 반한 인간생활을 자연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윤리적 지향을 정당화해야만 했다. 그에 따라 천견설, 혹은 거기에 가까운 주장을 취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근세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훨씬 더 각성된 눈으로 자연재해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근세에 널리 퍼진 백과사전인 데라지마 료안(寺島良安)의 『화한삼

36) 安藤昌益, 奈良本辰也 譯注, 『統道眞伝』下, 岩波書店, 1967, 120쪽.

37) 若尾政希, 『安藤昌益からみえる日本近世』, 2004.

재도회』(和漢三才圖會, 1712) 55권에는 ‘지진’ 항목이 있는데, 우선 “진(震)은 움직임을 말하는데, 성념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여, “양(陽)이 음(陰)의 아래에 얹드려 음에 다가선다. 따라서 피할 수 없다. 이리하여 땅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책을 인용한 후 “생각하건대 땅속에 구멍이 있어 벌들의 집처럼 물이 스며들고 양기는 항상 들락날락한다. 그 음양이 서로 조화로워져 때가 잘 맞으면 언제나 같은 모습이 된다. 만일 양기가 막혀 들락날락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땅이 팽창하고 물이 축소한다”고 하여, 음양의 기운이 적절하게 순환되지 못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자연현상으로서 이른바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세에는 객관적·과학적·합리적인 재해관도 상당히 퍼져가고 있었다.

② 민중의 재해 수용방식

이와 같이 지식인들은 재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지만, 일반인들은 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우선 아사이 료이(淺井了意)의 『가나메이시』(かなめいし)를 살펴보자. 이 책은 1662년 5월 1일 교토 방면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가나조시(假名草子)라 불리는 가나로 쓰인 통속적 책자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이 책에 대해서는 기타하라 이토코(北原糸子)가 상세히 정리하고 있는데,³⁸⁾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은 교토에서의 지진에 대한 실황적 묘사, 중권은 교토 이외 지역에서의 지진 피해의 개요, [중략] 하권은 일본지진사라고도 할 만한 것으로서 고기록에서 지진 기사를 발췌하거나 지진의 원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립하게 된 계기 등을 소개한다”³⁹⁾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지진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의 모습은 물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당황해 하는 모습, 불안, 비탄 등이 해학과 어울려 경쾌하고 절묘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

38) 北原糸子 編, 『日本災害史』, 232~245쪽.

39) 北原糸子 編, 『日本災害史』, 239쪽.

에 대비한 계몽적인 책자로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본서 하권에는 지진의 원인설로서 ‘불경’(佛經)과 ‘역도’(易道)의 두 가지 설을 들고 있다. ‘불경’의 설로서는 중세에도 행해진 『대지도론』(大智度論)의 사종설(四種說)도 있지만, 오히려 본서에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은 이 세계가 풍륜(風輪), 수륜(水輪), 금륜(金輪), 토륜(土輪)이라는 네 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풍륜의 움직임이 차례로 위로 전해져 지진이 일어난다는 설이다(『중아함경』中阿含經의 지동경地動經에 의거한다). ‘역도’라는 것은 중국 고전에 의거한 설인데, “음기(陰氣)가 위를 덮고 양기(陽氣)가 그 아래에 눌린 상태에서 위로 오르려는 양기가 음기에 눌려 움직일 때 지진이 일어난다”⁴⁰⁾는 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본 『화한삼재도회』 등에서 보이는 설명의 원형적인 것이다.

『가나메이시』의 마지막 장에서는 음양오행에 의한 천재지변설을 들고 있는데, “이번 지진은 오곡이 풍성하고 백성이 부유하게 될 징표이다”⁴¹⁾라고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체제 비판을 회피하여 출판통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한다.⁴²⁾ 더욱이 그후에 다음과 같이 이어 간다.

속설에 이 세계를 관리하는 오제용왕(五帝龍王)이 성을 낼 때 대지가 흔들린다고 한다. 가시마(鹿嶋)의 묘진(明神)이 그 오제용(五帝龍)을 거느리고 머리와 꼬리를 한 곳에 뭉뚱그려 그 위에 가시마의 암석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다고 해도 인간세계는 멸망하지 않는다. 옛 노래에 “흔들린다고 해도, 빠지지 않는 요석(要石)과 가시마의 가미가 있는 한”이라 읊었다.⁴³⁾

위에서 인용한 내용은 가시마 신궁에 얹힌 이야기로서 그 요석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용이 지진을 일으키는 것은 앞에서 본 네 종류 혹은 다섯 종류의 움

40) 井上和人 外 訳, 『仮名草子集』(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64), 小学館, 1999, 70쪽.

41) 井上和人 外 訳, 『仮名草子集』(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64), 82쪽.

42) 北原糸子 編, 『日本災害史』, 240쪽.

43) 井上和人 外 訳, 『仮名草子集』(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64), 83쪽.

직임 가운데 하나인 용동(龍動)에서 유래하는데, 동시에 용은 중세에서는 국토를 휘감아 지키는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였다.⁴⁴⁾ 그것이 점차로 세속화하여 마침내 메기[鯰]로 변환 것이다.

본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을 거론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서민은 그러한 이론적인 설명에 만족하지도 않았다. 호코쿠(豊国) 신사 주변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호코쿠 신사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점쟁이들은 각종 점을 치고 신사에서는 신탁이 행해졌다. 저자는 그러한 급조된 신탁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은 냉정·침착했었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아내로 착각하여 구마노(熊野) 여승의 손을 잡고 도망치게 된 바람에 아내에게서 버림받을 정도였다. 그 이후 출가승의 모습을 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난 지진의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서 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픽션이겠지만, 사태가 벌어지자 당황하여 허둥거리던 자기 자신을 회화화함과 동시에 그러한 서민의 모습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본서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서민의 재해관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막말 1855년 10월 2일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한 대지진 후에 시판되어 대유행한 메기 그림이다. 이것은 가시마 신궁의 요석에 눌러 있던 큰 메기가 난동을 부려 지진이 일어났다는 속설에 의거하여 메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지진의 양상을 그린 한 장의 판화인데, 200종류 이상이 팔려 나갔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는 그 그림을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⁴⁵⁾

1. 기괴한 메기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진의 참상을 그린 것.
2. 지진 제압의 가미로서 가시마 다이묘진(大明神)을 필두로 한 가미들 및 민중
에 의한 지진의 제압, 메기 퇴치를 그린 것.

44) 黒田日出男, 『龍の棲む日本』, 岩波新書, 2003.

45) 小松和彦, 「民衆の記憶装置としての鯰絵」, 宮田登・高田誠 編 所収, 『鯰絵』, 里文出版, 1995.

3. 부흥 경기로 인해 일부의 직공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기괴한 메기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 혹은 그 반대로 지진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궁핍상을 그린 지진 직후의 세상을 그린 것.
4. 부자들을 응징한다든지 새로운 세계를 출현시키는, 이른바 요나오시(世直し, 세상 바로잡기) 메기를 그린 것.

이와 같이 지진을 일으키는 메기는 악한 성질을 띠는 것이지만, 동시에 복신(福神)적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지진은 “부의 치우침을 바로잡아 직공인들에게 경제적 활력을 가져오는 경제적 은혜”⁴⁶⁾도 베풀고 있어 환영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기타하라 이토코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대형 메기에 비해 서민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작은 메기(메기 남자)에 주목하고 있다. “서민다운 이 메기 남자가 생생하게 그려진 것은 지진에 의해 땅 속 및 진흙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⁴⁷⁾이며, 서민에게 재해는 비일상의 해방감을 동반한 ‘재해 유토피아’⁴⁸⁾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대 중세에서는 재해의 원인에 대해 인간계를 뛰어넘은 초월적 존재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고, 그 설명으로서 천견설, 음양도설, 재앙신설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것이 근세가 되면서 세속화의 양상이 강해져 초월성이 약해지고 이러한 주장들은 점차 변형되어 갔다. 한편으로는 지진에 대해 객관적인 자연현상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이 인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운행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안도 쇼에키와 같이 초월적인 하늘 및 가미가 아니라 자연이 직접 인간의 행위에 감응한다는 발상도 나타났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중세의 용이 메기로 변하여 메기 그림으로 발전해 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초월적·신적인 힘이 왜소화하면서도 결코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근세적인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6)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 安政大地震と民衆』, 講談社, 2000, 226쪽.

47)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 安政大地震と民衆』, 228쪽.

48) 北原糸子, 『地震の社会史: 安政大地震と民衆』, 230쪽.

중세의 악마적 존재가 근세에는 유령 및 요괴로 변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 근대의 재해관

근대가 되어 최대의 재해는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이었다. 도쿄를 중심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 수도권이 궤멸적 상태에 빠졌다. 관동대지진은 특히 화재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여 혼조(本所) 피복창(被服廠)이었던 공원부지에서는 회오리바람을 동반한 화재로 인해 4만 명이 숨졌다.⁴⁹⁾ 현재 그 자리에는 도쿄도(東京都) 위령당(慰靈堂)이 세워져 대지진의 사망자와 도쿄 대공습의 사망자를 같이 모시고 있다.

관동대지진에서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선동한 일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유언비어가 사람들에게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조선인이라면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일조차 발생했다. 사회적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보전달이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관동대지진 이후에 이러한 사태를 반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상적 모색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교수이자 수필가로서 알려진 테라다 도라히코(寺田寅彦, 1878~1935)는 대지진 후 조사를 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몇몇의 수필로 대지진에 관한 생각을 피력했다. 그 기본적 사고방식은 “문명이 진전되면 될수록 자연의 폭위(暴威)에 의한 재해가 그 격렬함의 도를 증가시킨다”⁵⁰⁾는 점에 있다. 즉 문명이 진전되면 될수록 인간이 자연을 거슬러 인위적인 제작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재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문명이 발전하여 방재가 철저해지면 재해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낙관론을 비판하고 있다.

대지진을 계기로 문명의 진화에 대해 반성한다는 방향은 새로운 형태로 천

49) 吉村昭, 『関東大震災』, 文芸春秋, 2004.

50) 寺田寅彦, 『天災と国防』, 講談社學術文庫, 2011, 12쪽.

건설의 소생도 낳았다. 작가이자 날카로운 문명비평가였던 나가이 가후(永井荷風, 1879~1959)는 일기 『단장정일승』(斷腸亭日乘)에서 “근년 세간 일반의 사치와 교만, 끝을 모르는 탐욕적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번의 재앙은 실로 천벌(天罰)이라 할 만하다(1923년 10월 3일)”⁵¹⁾고 적고 있다. 가후는 “외관만을 보기 좋게 꾸밀 뿐 백 년의 대계를 준비하지 않는 국가의 말로는 바로 이와 같다. 자업자득, 나쁜 일로 천벌을 받았다(天罰靚面)고 할 수밖에 없다”⁵²⁾고 하는 것처럼, 표면만의 무리한 근대화를 무계획적으로 추진해 온 것에 대한 비판과 재해를 결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재해를 지배자에 대한 경계로 삼는 유교적인 천건설과는 달리 근대 문명의 양상을 되묻는 새로운 형태의 ‘천벌론’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천벌론으로서는 기독교의 입장에 선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 1861~1930)의 설이 주목된다. 우치무라는 대지진 후 「천재와 천벌 및 천혜」(天災と天罰及び天恵)를 발표하여 그 천벌관을 표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재는 글자 그대로 천재입니다. 즉 자연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점에 어떠한 불가사의한 것도 없습니다. 지진은 지질학의 원리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자체에 정의도 도덕도 없습니다”⁵³⁾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도덕과는 관계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도 이에 접하는 사람에 따라 은혜가 되기도 하고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 이전의 도쿄시민은 매우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지진이 적당한 천벌로서 그들에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⁵⁴⁾라고 이어 가고 있다. 즉, 지진은 실제로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쿄시민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관동대지진을 천벌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시민이 어떻게 타락해 있었을까? 우치무라는 “이번 대지진은 미증유의 천재임과 동시에 하늘로부터의 견책이다. …… 근래 정계는 동물들의 싸움터로

51) 永井荷風, 『摘録断腸亭日乗』上, 磯田光一 編, 岩波書店, 1987, 69쪽.

52) 永井荷風, 『摘録断腸亭日乗』上, 70쪽.

53) 內村鑑三, 『內村鑑三全集』28, 岩波書店 18쪽.

54) 內村鑑三, 『內村鑑三全集』28, 18쪽.

변했고 경제계 역시 상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으며 풍속의 퇴폐 정도는 아리시마(有島) 사건과 같은 일을 찬미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대지진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말에 찬동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아리시마 사건이란 대지진 직전인 1923년 6월에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가 유부녀 하타노 아키코(波多野秋子)와 동반자살한 사건이며, 불륜 스캔들로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발견은 7월 7일). 시부사와는 그것을 도덕적 퇴폐의 극치로서 비난하고 있는데, 우치무라도 그 생각에 동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치무라의 경우 단순히 도덕적 퇴폐만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아리시마는 우치무라의 혼도를 받아 기독교에 입신하였는데, 아리시마의 행위는 배교행위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지진 이전의 설교로서 대지진 직후에 발표된 우치무라의 「신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神は侮るべからず)는 아리시마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배교자를 엄하게 추궁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속에서 “신이 때때로 노여움을 드러내어 명백한 정의를 왜곡하여 기뻐하는 자를 벌하지 않는다면, 그때야말로 세계는 끝입니다”⁵⁵⁾라고 신벌이 내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정작 배교자 아리시마는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도, 대지진 후의 논조에서는 아리시마 개인만이 아니라 퇴폐의 극을 달리는 모든 도쿄시민에게 벌이 내려져 당연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우치무라는 그후 같은 해에 쓴 몇몇 문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화를 비롯하여 『구약성서』에서 신에 등을 돌려 타락한 지역에 신벌이 내려진 사례를 종종 인용하면서 신벌을 강조한다.

그러한 문장 중에서도 「이학과 신앙」(理学と信仰)은 그의 시각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거기서 “세상 모든 일은 두 방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현상으로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

55) 内村鑑三, 『内村鑑三全集』 28, 10쪽.

다”⁵⁶⁾라고 두 가지 시각을 거론한 후, “이학은 세상 모든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 위의 이학이 있습니다. 신의 성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과거를 되돌아보건대 존재했던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⁵⁷⁾라고 하여, 어디까지나 이학을 넘은 신앙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신의 성스러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치무라의 천벌론은 얼핏 보면 과거의 천견설의 흐름을 잇는 도덕주의적 재해론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에서의 신의 섭리와 신앙의 논의라는 점에서 이제까지 일본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투하되었는데, 가톨릭 신자가 많은 우라카미(浦上) 천주당(天主堂) 주변지역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나가사키의 기독교는 에도시대에 혹독한 탄압을 견뎌 왔는데, 다시 커다란 수난을 당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그 피해에 괴로워하면서도 부흥에 앞장선 나가이 다카시(永井隆, 1908~1951)는 기독교 입장에서 나가사키의 원폭의 의미를 받아들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가사키 번제설(燔祭説)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세계 대전쟁이라는 인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벌로서 일본 유일의 성지인 우라카미가 희생의 제단에서 태워질 순결한 어린 양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일본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지낸 4백 년, 순교의 피로 물들이면서 신앙을 지켜온 곳, 전쟁 중에도 영원한 평화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우라카미 교회야말로 신의 제단에 바칠 만한 유일한 어린 양이지 않았겠습니까?⁵⁸⁾

나가이는 수난의 땅 나가사키야말로 선택된 땅으로서 인류 모두의 죄를 안고 원폭의 피해를 맞게 된 것이라고 하여 거기서 신의 섭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

56) 内村鑑三, 『内村鑑三全集』 28, 63쪽.

57) 内村鑑三, 『内村鑑三全集』 28, 67쪽.

58) 永井隆, 『長崎の鐘』, サンパウロ, 1995, 145~146쪽.

것은 고난을 선택된 자의 징표로 이해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 논리 역시 종래 일본에는 없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천견설, 천벌설에 대해서는 동일본대지진 후에도 논의의 초점이 되었는데, 필자 자신이 그 논의에 관계한 바 있다.⁵⁹⁾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그때 종래 일본의 사상 및 종교 이외에도 남방계 데라와다 불교(소승 불교) 및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 발언하였고(예를 들면 2012년 달라이 라마 14세),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일본에서의 사상사적 전개가 아직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종종 극심한 재해를 겪어 온 일본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 왔는가를 둘러싸고 얼마나 다양한 사상적 양상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9) 末木文美士, 『佛教から現代を読む』, 新潮社, 予定, 2012.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고희탁(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 번역하였다.

국문초록

재해와 일본의 사상 | 스에키 후미히코

투고일자: 2012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일본에서의 재해와 사상이라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최근 두 개의 커다란 지진재해를 경험했다.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다. 이 두 재해가 일본의 사상·정신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은 같은 해에 일어난 옴진리교의 지하철 사린살포사건과 함께 사상계의 폐색적 상황을 낳았다. 더욱이 그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고 망자의 문제를 부상시키게 되었다.

둘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재해의 다발국인 일본에서 과거의 사상은 어떻게 재해를 받아들여 왔는가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고대·중세에는 천견설·음양도설·재앙신설 등이 있었는데, 특히 신불(神佛)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설이 널리 수용되었다. 근세가 되면 천리와 인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안도 쇼에키는 천견설의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독자적인 설을 전개하였다. 일반 민중들 속에서는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각종 속설이 등장했다. 특히 막말 안세이(安政)대지진(1855) 후에는 메기 그림이 대유행하였는데, 메기에 의탁하여 재해의 다양한 양상이 묘사되었다. 근대에 이르면 새롭게 기독교가 들어와, 관동대지진(1923) 후에는 우치무라 간조가 지진을 신의 벌로 간주하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제어: 재해, 자연, 천견설, 음양도설, 재앙신설, 천벌론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 황호덕

투고일자: 2012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시인 김동환은 관동대지진(1923) 후에 두 권의 장편서사시집을 출간한다. 「국경의 밤」

Disasters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_SUEKI, Fumihiko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ssues of natural disaster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First,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recent intellectual situations in Japan surrounding two large earthquakes: the one occurred in western part of Japan in 1995 and the other was in the eastern part of Japan in 2011. After the disaster in 1995, a sense of impotence prevailed in Japan. After the disaster in 2011, the issues of the dead becam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intellectual world.

Second,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hought surrounding natural disaster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he idea of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and the idea of divine wrath were the main ideas on the causes of disasters. In particular, the idea of divine wrath was the most popular.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activities became an important topic in the intellectual world. Ando Shoeki(1703~62) was the most exemplary philosopher who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natural disaster which he himself experienced in Tohoku district. In the world of popular belief, trembling of a large divine catfish was thought to be the cause of earthquake. In the modern period, Christianity introduced a new idea of “punishment from God” as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Keywords : natural disaster, nature,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divine wrath, punishment from God

Disaster and Neighborhood, from Great Kanto Earthquake(1923) to Fukushima Disaster(2011): Colony and Camp, A Contemplation from